卷頭言

大學의 自治와 大學敎育協議會를 생각한다

文敎部 次官 鄭 泰 秀

Ⅰ.

「未來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創造되어 지는 것이며 創造되기에 앞서 構想되고 創出되며 끝내는 意志에 따라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어느 학자가 말하였듯이 우리는 다가오는 未來를 되는 대로 맡기고 좌시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未來에 대비하는 많은 준비가운데 그래도 확실하고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民族의 歷史를 능동적으로 開拓하고 創造하는 歷史의 主體인 유능한 人間資源의 開發만이 밝은 未來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未來社會를 創造해 갈 수 있는 人間양성을 위한 敎育이야말로 現代國家의 지상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각 分野의 高級專門人力을 양성하는 大學敎育의 成敗는 民族의 運命을 左右하는 관건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Ⅱ.

大學敎育의 目的과 方向은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크게 나누어 人間性의 開發과 社會的 役割수행을 위한 훈련이라고 볼 때, 현대의 大學敎育은 古典的 의미의 大學과는 달리 그 公共性이나 國家社會的 의미가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점차 國家의 가장 중요한 責務로 자리잡아 가는 경향입니다.

더우기 政治·經濟面에서의 國際競爭이 날로 우심해가고 科學技術의 加速化時代에 처한 온 세계는 치열한 敎育競爭時代에 들어갔읍니다. 民族의 生存과 繁榮은 바로 大學이 決定한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大學敎育의 使命을 유감없이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學問과 藝術의 自由는 물론, 이를 보장하기 위한 大學의 自治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 모두의 염원인 것입니다.

學問의 自由란 外部의 制約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學術文化가 創出되고 科學技術의 進步가 이룩되는 것을 보장해 주는 裝置이며 大學의 自治 또한 이를 위한 制度的 개념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 學術硏究의 테두리를 정해 주는 制約속에서는 새로운 創意와 思想의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풍성한 文化의 꽃을 피울 수는 없는 것이기에 自由와 自律은 오랫동안 모든 문명국에서 國家的 理念이나 社會的 指標로 내세워 왔다고 하겠읍니다.

Ⅲ.

그러나 그 自由와 自律이 敎育과 學問을 신장하고 硏究분위기를 심화하는데 공헌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를 해치거나 放縱과 無律로 전락하여

급기야는 學問世界를 벗어나 反國家的·反社會的 性向마저 띠게 된다면 이는 自由의 本質을 잊고 그 범주를 벗어난 것이 되며 學問의 自由와 大學自治의 이름으로 이를 保護할 價値는 喪失한다는 것 또한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現代의 大學은 文化創造의 基地이며 人材養成의 産室로서 다가오는 未來社會에서 個人的으로는 自我를 실현하고 나아가 國家社會的 역할의 一翼을 담당할 수 있는 有能한 人的 資源을 産出하는 社會的 機關이므로 그 存在價値는 날이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大學이 향유할 수 있는 權利와 自由에 따르는 公共性의 앙양이나 國家社會的 責務 또한 날로 커가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Ⅳ.

위와 같이 大學敎育이 個人의 成長이나 國家社會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의 우리나라 一部大學은 大學이란 우상속에 안주하면서 부실한 운영과 허다한 試行錯誤를 되풀이 했던 것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오도된 大學自治의 所産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學事面에서는 으레 入學만 하면 卒業狀은 보장되고 지나친 現實參與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여 實際授業日數는 法定日數에도 미달하며 땀흘려야 할 授業은 소홀하고 試驗은 學點을 주고 받는 節次와 方便으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았읍니다. 이렇게 하기를 30여年間, 어느덧 大學은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단지 節次를 밟는 곳으로 인식하게끔 되었으며 學歷社會의 배경하에서 이런 풍조는 더욱 만연되어 갔었읍니다.

運營面에서도 지난 30여年동안 계속적으로 치솟은 公納金 引上이나 學生增員에만 執着하고 授業條件의 향상이나 敎育內實을 위한 直接經費보다 外廓施設의 확충으로 캠퍼스의 偉容과 虛勢만을 내세우며 私學의 自主性은 강조하면서도 公正性, 公共性을 외면하는 運營方式이 지배적이었읍니다. 따라서 大學에 대한 社會的 信賴나 權威가 실추되고 우리나라에서의 學位가 국내외에서 소홀한 대접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읍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까지도 그 시대의 부실한 大學敎育을 받았던 世代들이 大學敎育을 輕視하고 敎育投資에 인색하며 大學敎育은 그저 성장하는 과정의 한 節次와 形式으로 생각하는 偏見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읍니다.

그외에도 이러한 公正性의 缺如나 學事秩序의 紊亂은 필경 社會的 指彈을 받게 되고 國家的인 걱정거리의 대상이 되게 됨은 당연한 일로서, 敎育과 硏究라는 大學의 設立目的을 달성할 수 없게 하고 學問의 自由는 불건전한 勢力에 의해 손상되고 大學은 건전한 自主力을 잃게 됨으로써 大學의 自治力이 붕괴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學事秩序를 바로 잡고 勉學의 기초적 터전이나마 잃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모든 大學에 대한 각종 規制와 他律의 손길을 自招하고 말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一部大學의 非理와 矛盾은 혼란했던 지난날의 歷史的 産物이며 發展過程에서 빚어진 하나의 진통이었다고 넘겨 버리기에는 아직도 그 惰性과 習慣이 완전히는 가시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Ⅴ.

그러나 대부분의 大學은 그동안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고 政府도 7.30敎育改革措置로 大學風土의 쇄신과 運營正常化를 위해 大學入試制度의 개혁, 入學定員制에서 卒業定員制에로의 전환, 私學經營體制의 쇄신, 全日制授業의 권장을 비롯한 각종 改革을 단행함으로써, 大學의 勉學風土는 쇄신되었고 運營上의 非理나 矛盾도 많이 정상을 되찾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民族의 將來를 위해 다행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大學敎育의 改革은 타성화된 大學側에서 보면 하나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自律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他律로 보이는 정책도 첫머리를 틀기 위한 誘水政策으로서 이러한 과정이 속히 성숙되면 될수록 大學自治는 다져지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大學入試도 현재의 方式이 大學의 非理를 배제하여 국민의

信賴를 회복하고 고등학교 敎育의 內容과 方法을 正常化하기 위한 결단이라면 이 두가지 目的이 달성되고 그간의 잘못이 再發되지 않도록 高校와 大學이 모두 成熟된 연후에는 高校成績과 標準考査成績을 토대로 각 大學이 自律的으로 定한 評價査定基準에 의하여 入學生의 當落을 결정지을 시기가 올 것으로 내다보며 그 시기는 大學人의 노력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不正入學이나 特惠入學등 不公正性과 反公益性이 눈에 띄게 남아 있는 한, 國民은 大學의 건전한 自治能力이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卒業定員制만 하더라도 모든 敎授가 合心하여 大學의 명예를 걸고 공부하는 大學을 만들고 엄격한 學事秩序로 걸러 卒業狀다운 卒業狀을 주게 되었더라면 어찌 이러한 제도가 발생조차 할 수 있었을까마는 어떻든 大學 스스로 自律力量으로 여과장치가 가동되면 卒業定員制란 用語는 사라지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Ⅵ.

그러나 고도의 지성과 예지를 갖춘 大學人들의 廣場을 마련하여 大學敎育을 自治, 自律하면서 學問의 自由를 신장하고 지혜와 경륜을 서로 나누며 自活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大學이 최고학부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1982年에 大學敎育協議會가 창설된 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하나의 巨步를 내디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관은 불과 10여年 후에 우리 앞에 展開될 눈부신 2千年代를 내다보고 이에 대비하는 大學敎育의 올바른 方向과 座標를 위해 大學間에 허심탄회하게 硏究協議하고, 自律的으로 결정하며 그 결정한 바에 따라 서로 협조하고 自己評價를 통해 부단하게 自己成長을 도모해 가는 協議體로 발전해가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使命과 役割을 수행하자면 協議會는 먼저 國民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여망에 따라 政府와 大學間의 異見과 마찰을 調整說得하는 中間機構로서의 責任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개별 大學의 사정이나 이해를 초월하여 전체 大學의 發展과 특히 公共性을 昂揚, 鼓舞하는 國民과 政府의 代行機關이 되는 한편으로, 모든 大學들의 애로와 고충을 대변하고 이를 해결해 가는 奉仕機關이어야 할 것입니다.

Ⅶ.

근원적으로는 각 大學의 運營目標나 政府의 期待間에 상호 乖離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관이 名實共히 大學間 協議調整機構로서의 역할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大學敎育政策이나 그 시행에 있어서 지난 날과 같은 낭비나 비능률을 배제하고 和氣가 넘치는 가운데 生産的인 大學의 自治를 이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政府로서는 이 기관이 하루속히 확충발전되어 受任態勢만 갖춘다면 文敎部의 大學關聯業務를 大幅移讓하여 처리케 할 방침이며 각종 사업을 위한 政府보조나 支援도 年次的으로 확충하게 될 것입니다.

또 모든 大學들이 원한다면 法的 保障을 받는 團體로 육성키 위한 立法措置를 취하여 모든 大學의 自治를 이 機關을 통해 신장시킴으로써 바로 大學의 발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단체가 大學行政에 있어서는 第2의 文敎部로서의 機能을, 그리고 각 大學의 要求와 權益을 위해서는 大學聯合自治機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會員 大學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이 協議會의 發足은 바로 第5共和國의 施政指標인 敎育革新을 이룩하기 위한 意志의 발현인 동시에 和合과 自律을 지향하는 새 시대의 進運에 보조를 맞춘 것이기에 모처럼의 이 發想과 試圖가 크게 성공하여 이 기구로 하여금 敎育發展과 文化創出을 위한 하나의 跳躍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大學人의 능동적 참여와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